

의령군 경남미래테마파크 조성 중앙투자심사 통과

경남 의령군은 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.

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는 의령군과 경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테마파크 설립 업무협약(MOU)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467억원을 들여 의령읍 서동리 일대 3만7천㎡ 규모로 조성된다.

이 테마파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(IoT) 등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융복합 미래학교와 교실을 체험·전시하는 교육문화 시설이다.

주요 운영 콘텐츠 구성안은 3단계로 나뉜다. 1단계인 '기본체험관'에서는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 중심의 모험·전시·강연 체험장을 운영하며, 2단계인 '미래학교 미래교실 체험관'에서는 초·중·고교생들이 융합기반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실 수업과 첨단생활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한다. 3단계인 '심화체험관'에서는 미래 교육의 핵심 콘텐츠인 빅데이터, AI, 배움 교실과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이 연계 운영될 계획이다.

의령군은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,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며, 부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. 또 테마파크 체험 후 숙박시설과 연계를 통해 의령의 볼거리·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. 이로 인해 교육 시설과 관광산업이 새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지역민이 공유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의령군 관계자는 "상상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고, 새롭게 해석하는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"며 "도내 대학들과 함께 개발한 콘텐츠를 전시·체험 콘텐츠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"고 밝혔다. ●



테마파크 건립 부지

